

## 편집후기

○...얼마전 서울시내 某國民學校에서 火災가 發生했다. 그러나 教師들도 學生들도 침착하게 待避하여 人命被害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不幸中多幸.

이것은 火災發生 얼마전에 本協會 弘報部가 그 國民學校 教師들과 學生들에게 防火啓蒙映畫를 보여준 덕택이 아닐까? 火災를 일으킨 實驗室의 教師——實驗에의 執念때문에 火災에 대한 注意를 잠깐 게을리한 모양.

한 순간의 放心이나 不注意——結局 火災는 이것때문에 發生하는 것이 아닐까?

○...火災問題는 一般人들의 共通關心事가 될 때 그 解決이 쉽게 된다.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一般人들의 關心이 그리 높지 못한 理由는, 火災가 被害의 程度는 엄청나도 이것이 萬人에게 一時에 遍在하는 共通의 不幸이 아니기 때문일까?

研究課題가 아닐 수 없다.

○...本協會가 創立된지 어언 3年. 이에 따라 本誌의 誌齡도 세살이 되었다. 그러나 여전히 未治한 점이 많다. 讀者諸賢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란다.



火災安全點檢

(通卷6號)

登錄番號 바 520

登錄日字 1973年 10月 11日

〈非賣品〉

發行人 吳 琳 根

編輯人 金 雲 淑

發行所 社團法人韓國火災保險協會

서울 中區 草洞 21-9

電話 交 ㉠ 4106-10

㉡ 0082-5